石山子 權奇達 본보 전발행인 별세

2010년 10월 4일 향년 73세로

2005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번요의 시기에 안동권씨대종회장으로 재임하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법인화된 본사의 대표이사 발행인을 지낸 석산石山 권기달權奇達씨가 지난해 2010년 10월 4일 0시 40분 경북 안동시 안동의료원에서 향년 73세를 일기一期로 별세하였다. 이보다 2주쯤 앞선 9월 17일에 필자는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에 있는 부정공파 시조후 23세 이우당二愚堂 권환權 공 불천위의 349주 기신제에 겸해 국학진흥원과 세계유교문화축전조직위가 주최하는 전통상제례문화학술대회에 참관취재차 가서 제례행사를 집례하던 고인과 만났는데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상면이었다. 이때 학술대회가 끝나가는 심야가 되어, 취재 일정 때문에 익일인 새벽 1시의 제례행사를 마저 보지 못하고 서둘러 돌아오면서 몰래 작별의 손을 내밀어 눈인사로 끝냈던 바인데, 그때 월등히 노쇠하고 힘이 없어 보여 내심 놀라기는 하였으나 그리 무심하게 불귀의 길을 떠나리라고는 상상치 못하였었다. 이후 그쪽에서 전화하여, 밤길을 장거리 운전으로 잘 돌아갔느냐고 묻는 안부통화가 한번 있었고, 한동안 격조하면서도 언제 서울에 통원치료차 다니는 삼성의료원에 올라오는 길에 강변역 동부터미널에서나 잠시 보자는 전화가 있겠지 하며 감 뭇 모르고 있다가, 해가 바뀌고도 3월 중순이 되어서야 본사의 이사회의 등을 소집하고자 연락하려니 그 휴대전화가 불통이고, 자택으로 전화를 하니 작년 추석 후에 작고했다는 소리였다. 따져 보니 필자가 임하에서 상면한 것이 음력 8월 10일, 추석 닷새 전이고 별세한 것이 추석 12일 후인 음력 8월 27일이었다.

▲ 2005년 7월 대종회장으로 종무위원회의를 주재할 시의 고인

▲ 2006년 7월 영덕종친회 총회에서 축사를 하는 고인

5년여 전부터 간암의 진단을 받고 투병해오던 고인은 상태가 놀랍게 호전되어 즐기던 말술의 호주를 끊은 것 말고는 거의 정상인으로 생활하여, 주위에서 대개 완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왔다. 그런데 작년 추석 후 서울의 의료원에 오니 주치의가 복용약의 처방을 아니해주면서 신변정리를 권고하였고, 그 길로 귀가한 고인은 날짜를 공란으로 한 부고와 그 봉투에 수신자의 주소 성명까지 자필로, 그리고 상례시 집사분방기의 파록爬錄조차 미리 자필하여 놓고, 음력 8월 22일에 입원하여 5박 6일째의 40분이 경과한 27일 자정 넘어 축시를 20분 앞두고 운명한 것이다. 그 몇 시간 전 석식으로도 미음을 청해 들고 고통없이 담화하다가 고종考終하 듯 영면하였다는 후문이다. 장례는 3일장으로 10월 6일 아침 발인하여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눌곡의 집 뒤에 미리 마련해 석물까지 갖추어 놓은 신후지身後地에 안장되었으며 문상자가 3천에 이르렀다 한다. 그 문상자 3천 중에 필자가 그 비문을 지은 지기知己로서 끼지 못하는 바 되었으니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부끄러움인지 모르겠으되, 고인이 필자에게는 부고를 아니하여도 알 것으로 여기고 누락시킨 것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다. 어찌 되었던 이토록 무심하였던 잘못과 부끄러움은 모두 구천에 가서도 면할 길이 없는 필자의 몫이겠다. 대저 어떻게 그 부음을 반년이 지나서야 이 정보화 사회에서 듣게 되는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늦게 교유하게 된 사이지만 종사를 위요하고 우여곡절로 점철된 15년 세월의 애환이 주마등走馬燈 같아 시야가 자꾸 흐려진다. 이제 의사의 지시를 좇을 일도 없고, 따라서 그 좋던 술을 끊게 한 금주령도 해제되었을 터이니 저승에서는 정작 누구와 더불어 대작하여 그쪽 세상을 제압할 것인가. 필자에게 비문을 부탁하며 재촉할 때, 실은 산 사람 비문을 미리 짓는 게 싫어 거절하려다 그 명필의 글씨를 받을 요량으로 지어 주었었다. 필자가 글씨를 모르되 지금까지 접해본 유명무명인의 글씨를 통틀어 고인의 것이 가장 잘 살아 기운을 서리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남이 지어준 비문은 돌에 새겨 놓고 저렇게 누워 있으니, 그 대신 받을 글씨를 필자는 어디에 가서 얻으란 말인가.

▲ 2006년 8월 종보사 이사회의를 주재하는 고인

▲ 2005년 5월 시조 묘소에 대종회장 수임 고유를 할 시의 고 권기달씨

고인은 본명이 기달奇達, 자가 대가大可, 호가 석산자石山子인데 석산은 그 사는 마을 앞산의 이름이라 하였다. 부정공파 상호군 면勉, 행정공杏亭公 식軾계이며 안동 태사묘太師廟의 현판을 쓴 진사 낙고정洛皐亭 복형復亨의 11대손으로 1938년 음력 11월 16일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눌곡訥谷, 늪실에서 태어났다. 안동시 길원여고 교사 등으로 봉직하며 안동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안동시 녹전·예안면장을 거쳐 평통자문위원·안동권씨부정공파돈목회장·안동군정화위 사무국장 등을 지내며 국방장관·국무총리 표창과 대통령 근정포장도 받았다. 교학집요敎學輯要·가전사략家傳事略 등을 저술하기도 하며 일찍부터 안동지역 유림사회에 출입하여 원묘 행사의 절목 등에 조예가 깊고, 안동권씨대종회의 간사장으로서 역할하다가 2005년 5월부터 익년 8월까지 1년 4개월은 안동권씨대종회장으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9개월은 법인화된 안동권씨종보사의 초대 대표이사 발행인으로 재임하였다.

유족은 부인 진성眞城 이현모李賢模씨와 장남 영천여고 교장 순박純博, 차남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순덕純德, 3남 안동시청 식품산업과 순식純우, 4남 부산 거주 회사원 순석純爽, 5남 세진世振, 사위 안동시청 수도사업소 밀양密陽 박근환朴根煥에 내외손 남이 7인, 여가 2인이다.

<사진 본보 과년월호에서 발췌·글 權五焄>

▲ 2007년 9월 서울 사직대제 후직위 초헌관시의 고인

▲ 2003년 6월 현덕왕후 현릉제 헌관시의 고인

▲ 살던 집 뒤에 미리 다스려 놓은 고인의 묘소

輓權石山奇達前大宗會長만권석산기달전대종회 장

석산 권기달 전대종회장께 드리는 만사

개제기자성愷悌其慈性 : 조용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고금한륜인古今罕倫人 : 고금에 짝이 드문 사람인데
처신창원근處身彰遠近 : 처신으로 원근에 밝게 드러나
성망동향린聲望動鄕隣 : 명성과 인망 향리를 움직였네
원래천질미元來天質美 : 본디 타고난 바탕 아름다움으로
역겸학행빈亦兼學行彬 : 또한 학행을 겸해 갖추고
효우전가범孝友傳家範 : 효도와 우애는 전가의 모범인데
겸공계대현謙恭繼代賢 : 겸공으로 어질음 대를 이었네
필력상정묘筆力常精妙 : 서법書法이 항상 정묘하고
대객이관인待客以寬仁 : 빈객을 대함 두텁고 너그러우며
박문시서독博聞詩書篤 : 너른 견문으로 시서에 독실하니
광교한묵친廣交翰墨親 : 너른 교유 한묵으로 친하였네
치가연구습治家緣舊習 : 집안 다스림 옛 풍습에 말미암고
접물필순진接物必純眞 : 세상일 처리 다 진솔하였거니
여재오생도餘在吾生悼 : 뒤에 남은 우리네 삶 서글퍼지며
추모왕적빈追慕往跡頻 : 지난날 그리운 자취 연이어지네
향년비불수享年非不壽 : 누린 나이 수壽 아님은 아니나
재과칠십춘 過七十春 : 겨우 칠십년 고희를 넘긴 바일세
종사상종구宗事相從久 : 문중사로 오래 상종해온 터라
회공루지건懷公淚漬巾 : 공을 생각하니 눈물에 수건이 젖네

2011년 신묘辛卯 중춘仲春 족말族末 상목相穆 추만追輓